

2008 보일러 시장 분석 및 전망

교체시장 활성화 주목하라



올해 가스보일러 시장은 100만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최대 실적을 낸 이후 꾸준히 100만대 시장을 형성해 왔던 실적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대벽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시장 감소 원인으로 관련업계에서는 경기 부진과 부동산 대책, 원자재값 인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보일러 시장을 분석하고 내년도 보일러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약재만 이어진 '2007년'

2007년의 가스보일러 시장은 연초 내수 침체 및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2006년보다 다소 축소된 100만대보다는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처럼 3/4분기까지 집계된 생산량을 보면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

통계청의 가스 및 기름보일러 생산량 실적에 따르면

3/4분기까지 가스보일러 생산량은 68만2,855대로 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했으며 기름보일러는 10만5,907대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가스보일러는 약95만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시장과 교체시장, 특판시장 등 보일러 판매가 일어나는 세 부문의 큰 시장을 종합해 볼 때 올해 가정용보일러는 약 100만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



90년 초반 신도시 교체시기 ‘도래’ 다양한 기준 소비자 직접 선택 시장



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고유가에 따른 기름보일러의 약세로 인해 종합적인 가정용 보일러 판매량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보일러시장의 주요 특징은 건설경기 위축, 교체 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의 시장변수가 많았다.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와 경제전반의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시장이 형성됐다.

민간건설 위축이 지속되면서 건설경기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 활성화에는 영향을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보일러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보일러의 주요 원자재인 동과 스테인레스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은 보일러업계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보일러업계에 만연돼 있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원자재값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수익성은 더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부 보일러사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

로 인한 수익률 감소를 넘어서기 위해 보일러 가격 인상을 단행해 전체 수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일러사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듯 하다. 워낙 보일러경쟁에 있어 품질보다는 가격, 소비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보다는 설비업자 등에 집중했던 영업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이렇다보니 가격을 함부로 올릴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교체시장 활성화 ‘위안’

이처럼 2007년 경기부진과 건설경기 위축, 원자재값 인상 등의 악재도 있었으나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개보수시장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교체수요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은 위안거리로 작용했다.

특히 개보수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시장인 만큼 무조건 가격경쟁이 우선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열효율, 온수능력, 친환경성 등 다양한 기준이 보일러 선택의 중요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선택되고 있어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강한 보일러사의 실적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통한 가스보일러 사용 증가와 90년대 후반 개발된 신도시지역에서의 보일러 교체 수요 증가,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로의 교체수요가 확산됐다”며 교체시장 증가의 원인을 밝혔다.

신규 아파트 등의 신축시장 위축과 함께 이상 기온도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보일러 교체주기가 도래함으로써 교체시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유가 지속 등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 이는 보일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점차 세분화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보일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은 소비자들의 보일러의 고효율과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한 한 해였다”며 “지난 7월부터 일반보일러의 고효율 기준이 82%에서 84%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건설사에서도 고효율 보

일러에 대한 시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강조되면서 환경마크를 획득한 보일러 등 환경에 관한 시방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일러시장 불안으로 인해 각 보일러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가스기구의 명가에서 토털 리빙 시스템 제공업체’로, 귀뚜라미그룹은 홈시스를 바탕으로 ‘냉난방유통전문기업’으로, 경동나비엔은 ‘난방전문기업에서 생활환경 창조기업’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집중했다.

● 여전히 불안한 ‘2008년’

2008년에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경제성장율이 경제성장세가 강화돼 5.0%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 및 금리상승등으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비심리 개선, 고용활성화, 예상되는 세계개편등으로 민간소비는 4.5%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건설투자는 2기 신도시건설(인천, 검단 등) 추진, 2010년까지 추진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등으로 일단 건설분야에서는 올해처럼 어려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방 군소 건설사의 부도도 끝나지 않은 살얼음판이어서 건설시장이 보일러시장에 햇빛이 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다.

또한 지역난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다양한 대체난방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보일러 시장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마케팅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체시장 마케팅전략 필수

올해도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신규 시장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90년대 초반 신도시 붐과 함께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교체시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1.15 부동산대책이 탄력을 받을 경우를 수요변수로 감안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기름에서 가스보일러로 전환되는 교체시장이 주목할만하다”며 “90년대 초반 신도시 조성붐과 함께 보급된 가스보일러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회복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또 지방 건설사 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저해되고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 들어 주택 미분양의 급증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사 부도가

발생했다”라며 “지방의 미분양주택수는 10만호에 달하고 신일건설, 세종건설, 동도건설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주택보급율이 100%에 육박해 신규 주택 수요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일러 수요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일러 시장이 성숙기를 넘어서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보일러 시장 전망은 올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소비자의 욕구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이다. 내년 가장 주목할 부문은 바로 ‘콘덴싱보일러’가 대세로 떠오르느냐다.

이원화된 고효율기자재로 인해 현재 콘덴싱보일러와 일반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정확하게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 중인 ‘열효율 등급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에 집중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원화된 효율등급이 도출될 경우 1~2등급은 콘덴싱보일러가 차지할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고유가에서 에너지절감이 이슈인 상황에서 에너지절감이 뛰어난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한 신축시장은 감소할 것은 이미 예견돼 있는 부문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 등 대도시에 90년대 중반 건설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보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전환하는 교체시장도 2008년을 이끌 시장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체시장에서 콘덴싱보일러를 일반형보다 훨씬 많이 판매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구입할 때는 열효율이 높고 가스비가 적게 든 콘덴싱보일러를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